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4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10일(음 1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우주 삼라만상이 오직 중심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기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대응으로서 천인의 왕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사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심력과 더불어 중용을 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고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뒷어놓고 '주인공만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주인공이 해 줘야지.' '주인공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마음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주는 것을 동시에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걸 했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팔방미인을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팔방으로 뛰어다니다 주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잘나잘나 화(化)해서 돌아가니까, 잘나잘나 용도에 따라 변해서 애고(哀苦)도 세균성도 영계성도 유전성도 나오죠. 애고라는 것이 고정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도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이 망쳐질 수도 있고 저런 것이 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이 모든 것을 일임하라.' 할 때는 상황에 맞게 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고가 오면 '너밖에 고칠 수 없어.' 하고 놓는데, 그 놓는 순간에 약사로 환한단 말입니다. 또 내가 법정에 들어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독성, 산신도 되고 관세음도 됩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잘나잘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요량 있고 지혜롭게 넘어서 문제를 조금도 손색이 없이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올 때, 이걸 꼭 타파를 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이것은 너밖에 못해!' 하고 놓을 수 있지만, 내가 기능을 못할 때, 판단을 못할 때는 '너밖에 판단해 줄 수 없어!' 하고 봐야 합니다.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어! 하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저것 다르게 달릴 때마다 내 마음은 회해서 자꾸자꾸 용도에 맞게 봐야 되죠! 바뀌어서 봐야 되죠. 아버지 노릇 할 때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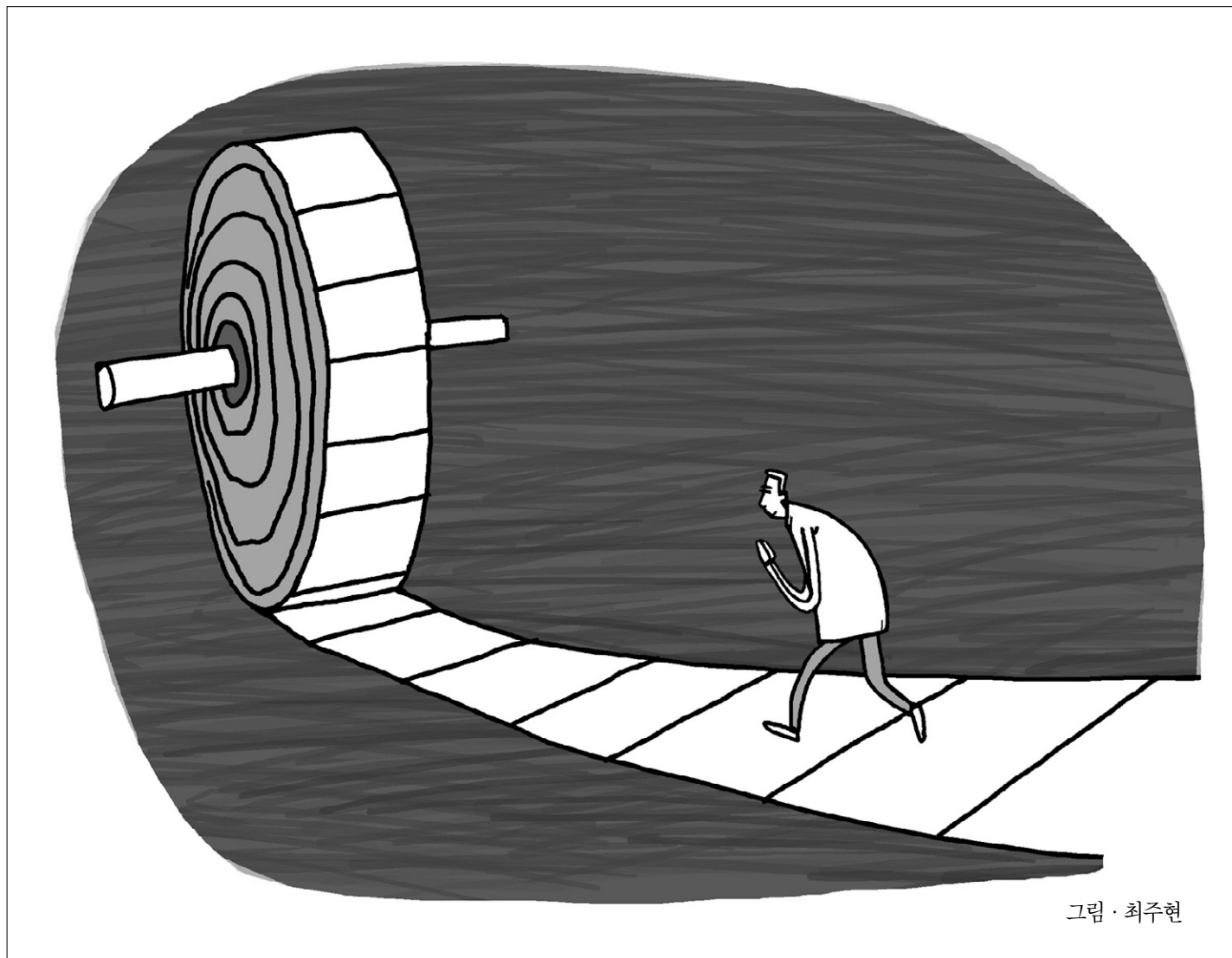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 하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끊어라 하니까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했지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끊어지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올라야죠.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아주 지혜로운 본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억년을 거쳐서 경험을 쌓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발전을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혜로움과 진화력과 그 모든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스스로 지혜로움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저 병고가 와도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너는 요것대로 해!' 해야 되지만,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너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랫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뭐뭐 사 가지고 와!' 이래야 뭐뭐 뭐뭐를 사 가지고 오죠. '너 알아서 사 가지고 와!' 한다면 그 사람이 뭐를 해 먹을 줄 알고, 입맛이 어떤 줄 알고 사 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묘해서 마음내는 거를 잘 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

음이라는 것이 바로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마음내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심봉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잘 파악하셨습니까? 지금은 정신세계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은 발전시켜려고 해도 먼저 정신이 발전을 해야 물질도 발전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봅니다. 정신을 발전을 못 시킨다면 이 세상의 물질도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신계를 제일로 주장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깨달아야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나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일체 만물의 그 마음도 꿰뚫어볼 수가 없느니라. 네 증생 하나 못 건지는 놈이 어떻게 남의 증생들을 다 건질 수 있겠느냐? 네 몸통이 속의 네 자생증생을 제도하지 못하고야 어찌 다른 증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거기 놓고 끌리는 대로 이 몸속의 자생증생들은 그 뜻을 받아서 움직여리게 돼 있습니다. 본래는 악업 선업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자기 영혼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마음 지도자가 자꾸자꾸 마음을, 어린애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야겠군요.

이 자생증생들은 내 마음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반면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은 대로 꼭 고정되게 업을 가지고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모르니까! 입력에 의해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다가 자꾸 입력을 해서 되놓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것이 자꾸자꾸 들어가 돌아옵니다. 그럼으로써 그 속의 자생증생들은 그대로 진화되면서 화합니다. 즉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것만 자꾸자꾸 연결부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증생들, 즉 몸속에 있는 자생증생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살로 화하게 되면, 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리만큼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돌 아님 도리와 더불어 다함으로써 나를 까지도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증생들이 보살로 화한 까닭에, 본인 하나가 바로 맨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추구하면서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보살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한해서 내 증생부터 제도를 다 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수가 유마힐 거사 병문안을 갔는데 왜 '증생들이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 하고 말을 했을까? 내 몸속의 자생증생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서 건강해야 자기 몸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은 그 말을 듣고 내 몸 증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먼 증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자기가 낫다는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 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 교육원 051-636-2972 광주 교육원 062-672-5432 울산 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르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